

주민혈세 이럴 때 쓰려고 아끼고 아꼈습니다

남구 또 한번 중대결단, 전 주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독감·코로나19 증상 흡사, 사회적 혼란 차단 목적… 전국 지자체 최초
 남구의회 예산 승인 29억원 확보… 만19세~61세 주민 16만명 혜택

전 주민 마스크 무상 배부를 단행했던 남구가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틀’을 깨는 또 한 번의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남구는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해 자칫 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을 환절기 인플루엔자(독감)의 유행을 막기 위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들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전 주민으로 확대한 경우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

래 처음이자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 남구 전 주민 독감 무료접종 소식은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두 달 전부터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독감백신 전 국민 예방 접종’ 주장을 촉발시키는 등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국가 및 부산시의 인플루엔자 무료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남구 주민 중 약 16만 명이 혜택을 본다. 이번 무료 접종 확대에 29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남구 의회의 의결로 지난 9월 임시회 추경 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했다.

영유아, 고령층 등 국가지원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9월부터 우선 실시하고 남구 확대지원 대상자는 10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가접종 대상자들은 전국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남구 지원 접종은 남구 내 위탁의료기관 100여 곳에서만 접종 받아야 한다.

한편 국가·남구 지원 대상자 관계 없이 정해진 접종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구보건소 ☎607-3365~8

■ 인플루엔자(influenza)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전염성이 높은 급성 호흡기질환이다. 38℃ 이상의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고 폐렴, 기타 질환을 악화시키는 등 코로나19의 증상·후유증과 매우 흡사하다.

박재범 남구청장 한가위 인사말

휘영청 보름달 같은 환한 소식 주민 여러분께 한아름 안겨드리겠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가위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통해 다시 희망을 꿈꾸는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K방역을 만들어냈고 그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온정으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남구직원들은 방역복과 민방위복을 번갈아 입고 방역현장을 누비는 한편 늦은 밤까지 남구청 불을 밝히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스크 배부, 방역물품 지원, 골목상권 영수증과 마스크 교환, 전 주민 독감백신 무료접종까지 선제적이고 과감한 예산 집행을 추진했고 장기적인 남구 발전을 위한 국·시비 확보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구 공직사회 변화의 물결에 힘입어 2년 전 3,288억원의 남구 예산이 올 하반기 추정까지 6,622억원으로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사회적 연대의 힘을 확인했고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구가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정부 예산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남구형 뉴딜’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4,101억원의 36개 사업을 발굴하고 얼마 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남구형 뉴딜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사업 유치에 성공한 용호동 도시재생에 이어 올해는 2,640억원 규모의 문현동 도시재생사업에 도전합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드디어 남구 지역상권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오륙도페이가 출시됐습니다.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지역 자본의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0월 말 출시를 앞둔 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어디GO’도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남구직원들은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겠습니다. 이번 한가위를 전환점으로 우리 남구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남구청장 박재범

※ 부산남구신문 제296호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한 4/4분기 1종 1회 홍보물로 단제장의 사진, 추진실적 등을 게재합니다.

남구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박재범 구청장 코로나19 모범 대응 등 공로 인정받아

박재범 남구청장이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지방자치행정부문 상을 받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국 지자체 중 국민민복(國民民福) 증진 및 미래전략 수립, 국가 인재 양성 등에 기여한 공직자를 3차에 걸쳐 심사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에 주는 상으로 남구는 제1회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시상식은 대한민국 헌정회 주최로 오는 10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다.

남구는 올해 전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 코로나19 발생에 맞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선제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한 점이 인정을 받았다. 특히 신속한 코로나19 검진을 위해 검체 채취 음압부스를 제작·활용하여 채취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전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마스크 100만장

을 배부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 점이 수상에 크게 작용하였다. 지역 상권 구매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는 ‘마스크 50만장 교환사업’도 남구만의 특색사업으로 꼽혔으며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도 지역상권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박재범 구청장은 “전 국민 독감 무료접종 실시, ‘오륙도페이’ 활성화, 공공배달앱 시행 등 민선7기 후반기에도 안전과 경제를 둘 다 잡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모바일 부산남구신문 신청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부산 남구청 채널에 접속되며, 채널 추가하면 모바일 신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추석선물’ 오륙도페이 지류권 출시

5000원·1만원권… 70% 이상 사용시 잔액 환불
 남구 전역 부산은행·농협·새마을금고서 구매

10월 말까지 10% 할인

남구의 지역화폐 오륙도페이가 충전식 선불카드에 이어 지류권(종이상품권)으로도 출시됐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지류상품권 발행은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선불카드와 달리 지류권은 기존의 은누리상품권처럼 할인율을 차감한 금

액으로 구입해 지폐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권면 금액의 7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지류권은 5,000원·1만원권 2종으로 발행되며 남구 내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52곳에서 판매된다. 14세 이상이면 남구 주민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지만 할인 혜택은 선불카드



와 지류상품권을 합산해 1인당 월 40만원(연 48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선불카드와 지류권 모두 평상시에는 8%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출시기념, 추석·설날 등 명절 기간에 한해 최대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10% 할인 구



매는 10월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이나 공공기관은 구입 시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륙도페이의 할인 혜택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선불카드 사용액은 최대 40% 연 탈소득공제(전통시장이용)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 ☎607-4475

은혜 깊은 뽀빠로… 턴투워드부산 홍보대사 활동

〈11월 11일 11시 유엔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남구 요청으로 뽀빠로데이 패키지에 홍보 문구 인쇄
 유엔참전용사·유족 3000명에 뽀빠로·마스크도 배송

남구청의 요청으로 롯데제과의 뽀빠로가 11월 11일 UN기념공원에서 개최되는 유엔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인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의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롯데제과는 턴투워드부산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자사의 ‘뽀빠로 데이(11월 11일)’ 기획상품에 턴투워드부산을 알리는 홍보문구를 인쇄해 전국 매장을 통해 시판에 들어갔다. 뽀빠로데이 패키지상품 70만개(70억원 상당)에는 ‘11월 11일 11시 부산 남구 UN 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추모 TURN TOWARD BUSAN(유엔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본 행사에 뽀빠로가 함

께 합니다 라는 문구가 인쇄된다. 남구는 뽀빠로데이와 연계한 턴투워드부산의 전국적 홍보를 위해 지난 9월 21일 남구청장, 롯데제과(주), 부산지방보훈청장 3자 업무협약서(사진)를 가졌다.

국민 간식 뽀빠로가 턴투워드부산의 홍보대사로 나서게 된 사연은 이렇다. 625전쟁에서 희생된 유엔군을 추모하는 ‘턴투워드부산’이 정부 주관 행사임에도 11월 11일은 광고롭게 뽀빠로데이와 겹쳐 언론과 국민 관심이 뽀빠로에 쏠려 행사의 의미가 반감돼 안타까움을 자아내 왔다. 이에 지난해 10월초 ‘턴투워드부산 홍보에 뽀빠로



데이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남구청 내부 제안이 나왔고 이에 박재범 남구청장이 롯데제과에 협조를 구하는 개인 서한을 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당시에 기획용 뽀빠로 제품은 모두 제작을 마친 상태라 남구청의 요청은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중순 남구청이 다시 롯데제과 측에 같은 제안을 공문으로 보냈고 이번에 롯데제과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급물살을 탔다.

남구와 롯데제과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4개국의 참전용사와 가족 3,000여명에게 뽀빠로 기획 상품 2종과 마스크를 전달할 계획이다.

11월 11일 11시 전 세계가 UN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추모하는 턴투워드부산은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 씨가 처음 제안해 지난 2007년 첫 행사를 열었고 이듬해부터 국가보훈처가 국가 행사로 승격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커트니 씨는 “학령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뽀빠로를 통해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알게 돼 더할 수 없이 기쁘고 고맙다”는 감사 동영상상 남구청에 보내왔다. 미래성장담당관 ☎607-3652